

ZHONGHANFANYIJIAOCHENG

중한 번역교정 中韩翻译教程

ZHONGHANFANYIJIAOCHENG

주석봉 저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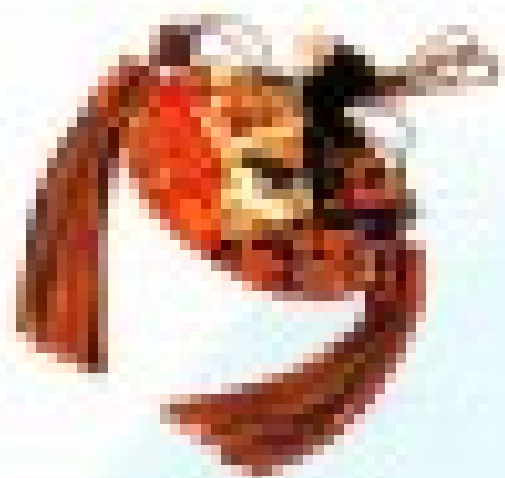
료녕민족출판사

2008年12月第1版第1次印刷 16开 128页 32.00元

중 한 번역교과 中韩翻译教程

2008年12月第1版第1次印刷 16开 128页 32.00元

李永福 编



CHINA

ZHONGHANFANYIJIAOCHENG

중한 번역교정 中韩翻译教程

ZHONGHANFANYIJIAOCHENG

주석봉 저



■ 료녕민족출판사

© 朱锡峰 2006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中韩翻译教程/朱锡峰著.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06. 2

ISBN 7-80722-153-4

I. 中… II. 朱… III. 朝鲜语—翻译—教材
IV. H555.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6) 第011318号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 110003)

印刷者: 沈阳市第六印刷厂

幅面尺寸: 145mm×210mm

印 张: $14\frac{3}{4}$

字 数: 400千字

印 数: 1501-3500

出版时间: 2006年2月第1版

印刷时间: 2006年6月第2次印刷

责任编辑: 金顺玉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赵京花

定 价: 30.00元

联系电话: 024-23284348

邮购热线: 024-23284335

E-mail: lnmz@mail. lnpgc.com.cn

머리말

《중한번역교정》은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론과 기본원칙 및 요령을 언급한 교과서입니다.

이 책을 펴낼 때 번역의 방법으로 기타 민족의 언어와 문화 연구에 흥미를 가지는 분들의 수준을 감안하고 초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번역이론을 여러 개 단원으로 나누었고 또 실용성이 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론설명을 돕게 번역해석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실천과를 내오고 매 번역실천과에 여러 가지 유형의 실용적인 연습문제를 대량 첨부하여 자학에도 큰 부담이 없이 한국어를 배우는 참고서로 응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을 내오면서 이론 지식은 주로 연변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중한번역교본》(장의원, 김일 저)을 참고하였으며 일부 번역 내용은 인터넷의 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리면서 출판에 도움을 주신 여러 분께 더 없는 고마움을 드립니다. 시간상, 수준상의 제한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독자 여러분의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자

차 례

번역 상식(단원공부 1)	1
제1과 反分裂国家法	17
제2과 一个国家, 两种制度	25
독음 번역(단원공부 2)	33
제3과 世界瞩目新中国	41
제4과 我不做皇帝	52
전치사 번역(단원공부 3)	62
제5과 中国人的姓名	79
제6과 四灵古代吉祥的象征	89
부사 번역(단원공부 4)	102
제7과 云南	128
제8과 万里长城	139
준말, 외래어, 의성어, 수사 번역(단원공부 5)	150
제9과 数的文化域	169
제10과 现代汉语中的“日语外来语”	179
동사, 형용사 번역(단원공부 6)	192
제11과 桃和李	209
제12과 黄山四绝	221
성구, 속담 번역(단원공부 7)	235
제13과 三令五申	250
제14과 九牛一毛	257
제15과 俗语故事二篇	264
혈후어 번역(단원공부 8)	275

제16과 黄金潮	288
제17과 藏民原始部落	298
관용어 번역(단원공부 9)	308
제18과 故宫博物院	318
제19과 嗅觉和味觉障碍	331
복문 번역(단원공부 10)	341
제20과 人的毛发	361
제21과 恶毒的蚊子	371
번역 기교(단원공부 11)	383
제22과 苗族	400
제23과 海南岛	413
논리 관계 번역(단원공부 12)	427
제24과 长白山	448
제25과 青岛旅游欢迎词	456

단원공부 1

번역 상식

1. 번역에 대한 이해

1) 번역은 재창작의 과정이다

사회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세계화는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새롭게 만들고 있으며 언어, 문화 교류도 세인들이 중요시하는 경제발전의 요소로 내밀고 있다.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교류수단이 아니라 생산발전의 수단, 경제창조의 수단, 무형의 사회경제창조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민족마다 자체의 특징이 있다. 민족언어는 한 민족의 주요한 특징으로서 고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민족언어와 상호 배척하고 또 상호 흡수하면서 발전한다. 이런 측면에서 번역은 부동한 민족어의 직접적인 대화교류이며 세계를 알아보는 사회실천의 열쇠이다.

번역은 한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그와 다른 언어와 문화로 옮겨놓는 것이기에 언어재료의 재구성과 표현의 재창작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정을 수요한다.

○我真看不过你这么得意忘形.

△ 나는 네가 이렇게 우쭐대는 거 정말 못 봐주겠다.

원문의 술어가 앞부분에 위치하고 보어는 우리말 술어의 자리에 놓여 있다. 원문의 보어는 “제 생각대로 되어 자기가 어떠한지를 잊고 있다”의 뜻으로 나타나고 우리말로 옮긴 그 뜻은 “우쭐대는 거”로 되어 원문의 단어결합 특징과 수식 특징이 어느 정도 달리 되었다 하더라도 원문과 번역문이 나타내는 뜻은 사물인식의 동일성을 가진다.

○ 靠山吃山, 靠海吃海。

이 말은 속담인데 언어구성이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할 수 있다.

△₁ 산골 사람은 산의 덕을 입고 물가 사람은 물의 덕을 본다.

△₂ 산골에선 산을 믿고 살며 바닷가에선 바다를 믿고 산다.

△₃ 사람들은 생활환경의 특징에 따라 살아간다.

이상의 번역은 서로 부동한 언어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의 형태를 통해 여러 가지 번역의 형태로 만들었는바 재창작이 아닐 수 없다. 번역이 재창작의 성격을 가진다 하여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번역의 재창작은 언제나 원문에 충실해야 하며 원문의 뜻을 달리 하거나 임의로 생략 혹은 첨가해서는 안 된다. 번역의 재창작은 원문을 다른 언어형식으로 정확하게 재현하는 언어예술의 가공이다.

2) 번역의 표준

번역은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한다. 정확성이 없으면 번역의 가치를 상실한다. 번역의 정확성은 원문의 사상내용을 완전무결하게 다른 민족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확립된다. 이른바 원문에서 서술된 사실, 인물, 풍경 그리고 대화자나 작자의 감정, 입장 등을 포함한다.

번역의 정확성에는 언어의 특징과 표현의 특징도 내포된다.

언어의 특징은 어음, 어휘, 문법 등에서 찾아보는 원문의 특징으로서 대화자나 작자 혹은 작품 속의 인물 특징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 真瞎胡闹, 又让我白跑一趟。

△₁ 또 내게 헛고생을 시켰으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₂ 말이 아니야, 또 내가 헛고생만 했다.

△₁ 번역문은 조심스런 불만을 보이고 △₂ 번역문은 아주 격한 불만을 보여준다. 어휘의 사용이 다름에 따라 사상내용도 어느 정도 달리 표현된다.

번역에서 원문의 표현특징을 잘 살려야 정확성이 나타난다. 원문에서 이용된 서술법, 묘사법, 수사법, 논리적 수법 등이 다 표현과 관련을 맺고 있다.

○ 调查黑市交易情况。

△₁ 검은 시장거래 상황을 조사한다.

△₂ 비법시장, 비법거래 상황을 조사한다.

원문의 《黑市交易》는 비유의 뜻으로 결합된 말인데 색깔이 검은 것이 아니라 비법의 뜻을 형상적으로 표현했다. 때문에 △₁ 번역문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 前怕虎, 后怕狼, 你还能干啥?

△₁ 앞에 있는 호랑이가 무섭다, 뒤에 있는 늑장이라도 무섭다면 너는 대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느냐?

△₂ 네가 이것저것이 다 두려워 난다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느냐?

△₁ 번역문에서 원문의 언어재료와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데 애를 썼지만 보여주는 뜻은 똑똑하지 않다.

번역에서 합리한 언어와 표현을 이용해야 하며 언어나 표현은 내용 전달의 수단으로 되어야 한다.

3) 번역의 과정

번역의 과정은 원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과 원문을 우리말로 전환시켜 표현하는 과정이다.

원문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잇달아 나타난다. 원문을 옮겨 이해하여야만 번역표현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마다 문화수양과 수준이 같지 않고 이해 방법이 같지 않음으로 하여 서로 다른 이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흔히 이런 차이가 번역문의 질에 미치게 된다.

“말은 ‘야’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고 한마디 말에서도 핵심으로 되는 단어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 번역의 재료가 오만가지여서 박식한 지식이 수요되며 올바른 이해방법이 수요된다. 핵심으로 되는 단어가 고어인가, 현대어인가 혹은 성어인가, 헐후어인가 혹은 입말 단어인가, 글말 단어인가 혹은 반어인가, 비유어인가 등을 판단한 후 문맥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많은 오역과 떨떨한 번역은 바로 이 과정이 철저하지 못한데서 기인되기도 한다.

○ 大哥, 这是最低价了, 你买吧。

△₁ 오빠(형님), 이것은 최저 가격인데 사세요.

△₂ 오빠(형님), 이걸 아주 싼 가격이요, 사세요.

중국인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 순위 남자를 보고 모두 《大哥》라 부른다. 만약 화자에 대한 옳은 분석이 나서지 않으면 오빠로 번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님으로 번역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다.

“최저 가격”은 흔히 상인들이 서로 팔고 사고 할 때 즐겨 쓰는 용어로 알려지고 “아주 싼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잘 어울리는 말로 알려진다.

모택동의 시사(诗词)에 이런 구절이 있다.

○ 才饮长沙水，又食武昌鱼。

△ 방금 장사의 물을 마셨는데 또 무창의 고기를 맛보는구나.

이 번역문에서 “무창의 고기”라고 했는데 잘못된 번역이다. 기실 무창의 고기가 아니라 물고기의 이름 “무창어”를 말한다. 번역을 하다보면 늘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번역의 연구대상이 너무 방대하고 끝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삼국연의》에 이런 말이 나온다.

○ 周郎妙计安天下，陪了夫人又折兵。

△ 주랑의 묘한 계책은 천하를 편안케 하리로다. 부인을 모셔다 드리고 군사마저 패했구나.

《삼국연의》에 고어가 많이 나타난다. 현대어에서 《陪》는 “모시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고어에서는 “손해보다”의 뜻으로도 쓴다. “부인을 모셔다드리고”란 말의 뜻이 똑똑하지 않다. 이 말의 역사배경을 생각하여 “부인도 잃고 군사도 패했도다.”로 번역함이 합리하다.

원문을 우리말로 전환하여 표현할 때 되도록 쉬운 말, 표준말을 쓰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잘 오르도록 하며 억지번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억지번역은 흔히 규범이 되지 않은 단어나 자기가 스스로 만든 말 혹은 언어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남용하는데서 기인되기도 한다.

○ 认真学习本领。

△ 임진하게 본령을 학습한다.

번역문에 나타나는 “임진”과 “본령”이란 말은 원문의 단어 《认真》과 《本领》의 독음을 옮긴 것이다. 기실 우리말 한자어에 이런 말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억지번역이 아닐 수 없다. 번역문의 “학습”은 불합리한 단어선택으로 된다. 옹당 “착실하게 능력을 키운다” 혹은 “착실하게 기능을 배운다” 등으로 되어야 한다.

○ 安排专人买土产品。

△ 전문인원을 안배하여 토산품을 사게 했다.

번역문의 단어 “안배, 토산품”은 아직 규범이 되지 않아 남용할 수 없는 사정이고 “전문인원”은 흔히 특수한 사명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것으로 이 언어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 明天上班后到我的办公室来一趟。

△ 내일 썬발 후 내 판공실에 오세요.

우리말에 《上班》이란 단어에 맞물리는 말이 있는데도 “썬발”과 같이 음차의 방법으로 번역할 이유가 서지 않으며 사무실이란 말을 밀어놓고 《办公室》을 독음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도리도 서지 않는다.

표현의 합리성을 연구해야 한다. 번역을 할 때 우리말의 표현특징을 살려야 하며 원문과 논리적 동일성을 가져야 한다.

○ 我们要发扬一不怕苦，二不怕死的精神。

△ 우리는 첫째로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둘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번역문에서 원문의 뜻을 원만히 보여주고 있지만 표현이 속되다. 옹당 우리말답게 “고생도, 죽음도”와 같은 어미형태를 이용하여 강조와 포함의 뜻을 살려야 한다.

○ 背后搞人，也是他的特长。

△ 뒤에서 남을 해치는 것도 그 사람의 특징이다.

원문에서 부정의 의미로 《特长》이라고 할 때 번역문에서도 부정

의 정서가 강한 말로 되어야 한다.

△ 몰래 남을 해치는 것도 그 사람의 남다른 재주이다.

이 번역문에서 “재주”는 반의어로 되어 부정의 뜻이 잘 나타난다.

○ 明明知道自己错了, 还在坚持自己的做法, 怎么解释呢?

△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변연히 알면서도 자기의 작법을 견지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원문의 《坚持》를 “견지”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고집”으로 고쳐 부정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

○ 这里六月的气候一会儿晴, 一会儿阴, 变化大着呢。

△ 이 곳의 6월의 날씨는 때로는 맑았다, 때로는 흐렸다 하며 변화가 크다.

이 번역문은 내용전달에서는 오해가 생기지 않지만 표현이 너무 저분하다. “이 곳의 6월의 날씨”란 말의 어순은 막혔다 이어지는 감을 준다. 유창한 어순을 만들기 위해 “날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말 “때로는”을 빼버릴 수 있고 “변화가 크다”란 말을 바꾸어 “변덕이 심하다”로 표현할 수 있다.

△ 이 곳의 6월은 금방 맑았다 흐렸다 하며 변덕이 심하다.

번역의 표현과정에 관련되는 연구문제가 너무 많다. 번역과정이 창작의 과정이어서 항상 새롭게 느끼는 것도 많고 또 자주 부동한 번역자료를 만나게 되어 끝없는 연구에 들어서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번역과정이다.

2. 음차 방법

음차란 말 그대로 음을 빌려쓴다는 뜻으로 다른 민족어의 발음을 번역에 옮겨오는 수법이다. 음차의 방법은 주로 단어의 번역에 적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익숙하지 않거나 국제문화교류의 편리를 위해 언론계에서 흔히 이런 번역방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도시인 《北京, 上海》를 “베이징, 상하이”로 번역하거나 중국사람의

이름 즉 《邓小平, 胡锦涛》를 발음에 따라 “똥쇼핑, 후진타우”로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 외래어는 대부분이 이런 음차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음차의 방법은 기타 민족의 발음을 어떻게 표기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한국 “외래어 표기법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에서 참조할 수 있는 규정을 소개한다.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 | | |
|--------------|--------------|
| ○ 东京 도쿄, 동경 | ○ 京都 교토, 경도 |
| ○ 上海 상하이, 상해 | ○ 台湾 타이완, 대만 |
| ○ 黄河 황허, 황하 | |

※ 바다는 “해(海)”로 통일, 한국을 제외(제주도, 울릉도)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珠江-주장 강)

번역의 방법이 아무리 많고 다양하다 해도 언제나 번역의 자료에 의해 결정된다. 중한번역에서도 원문이 어떤 언어재료들로 구성되었는가를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我去过中国的沈阳和大连》이란 말을 우리말로 “나는 중국의 선양과 따론펬에 가본 적 있다.”로 번역하였다면 여기서 “선양”과 “따론펬”이 음차로 된 번역이다. 《我们去麻辣街喝麻辣汤吧》를 “우리는 마라거리에 가서 마라탕을 먹자”로 번역했다면 여기서는 “마라”가 음차로 된 번역이다. 다음 《秧歌是中国

东北的民俗舞蹈》에서 유독 단어 《秧歌》란 춤은 우리 민족이 이해하기 힘든 낯선 무용의 이름이기에 우리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명사이다. 이런 언어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그 단어의 중국어발음을 그대로 옮겨 “양절”로 번역하게 된다.

중국어의 발음에 성조가 있어 우리말에 옮겨온다 해도 발음상에 차도가 생기게 된다. 성조는 우리말로 어떻게 표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음차의 방법을 쓴다 해도 발음상 정확도를 확고할 수 없음을 제시해준다. 중국어의 권설음도 우리말 어음으로 정확하게 표기하기가 힘들다. 만약 그 권설음을 다 표기하자면 우리말에서는 여러 개 음을 조합해야 하기에 표기와 발음의 혼란이 생기게 된다. 음차는 발음상 어느 정도 동일성을 보여주지만 이해에서는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약점도 있다. 음차의 방법으로 번역을 할 때 아래와 같은 문제를 잘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재래로 우리가 한자어로 번역하여 사용해온 역사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새로운 지명을 제외하고 재래의 용법에 따라 독음의 번역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의 《北京, 上海, 天津》등 국제도시로 불리는 지명에 한해서 음차나 독음이 다 적용된다. 그리고 기타 유람 관광지, 도시이름, 부두이름 등에 대해서는 독음이 더욱 적절하다고 알려진다. 우리가 옛날부터 독음으로 이런 지명을 번역해왔기에 이해에 도움이 된다.

둘째, 중국어에 어떤 명사는 소수민족의 언어로 명명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소수민족의 어음발음대로 음차의 번역방법이 좋다. 이름 《布达拉宫, 喜马拉雅, 哈尔滨, 乌鲁木齐》등을 “부다라궁, 히말라야, 할빈, 우루무치”로 할 수 있다.

3. 직역 방법

직역의 방법이란 원문의 언어재료, 언어의 표현형태를 가능한 정도로 변경하지 않고 우리말로 옮겨오는 수법을 말한다. 우리말과 중국어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우리말에 한자어휘가 많이 함유된 인연으로 많은 경우 직역이 적용된다. 특히 많은 명사들을 독음을 하는데 중한번역의 기초로도 된다. 번역할 때 원문의 언어재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번역방법으로 갈라진다. 직역이라 하여 한 개 문장의 모든 언어재료가 다 직역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직역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원문의 언어재료가 우리말 한자어휘에 대응될 때 직역을 할 수 있다.

○ 北京, 简称为“京”, 是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政府所在地。中央四个直辖市之一, 是全国政治、经济和科学文化的中心, 也是国内国际交往的中心之一, 是中国历史文化名城和古都之一。

△ 북경의 약칭은 “경”이다. 북경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소재지이다. 북경은 중앙 직할시 4개 중의 하나로서 전국의 정치, 경제와 과학문화의 중심이며 국내와 국제 내왕의 중심, 중국 역사와 문화유명도시, 중국 옛 도시의 하나이다.

이 번역문은 기타의 번역방법도 도입되었지만 직역이 기본으로 된다. 직역의 방법으로 어느 하나의 단어나 성구를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문장, 한 편의 글을 번역할 때에 이용되는 기본 방법으로도 된다.

○ 我们一定要团结, 团结就是胜利。

△ 우리는 꼭 단결해야 한다, 단결은 곧 승리이다.

이 번역문에서 언어재료와 어순도 원문 그대로이다.

○ 太平将军喊太平盛世。

△ 태평장군은 태평성세만 말한다.

언어재료와 문법의 특징을 그대로 살렸다.

직역은 원문의 언어특징 뿐만 아니라 문법특징, 수사특징 등을 살리는 데서 나타난다.

○ 《人民日报》21日通过评论谴责说：这是对中国主权、领土统一、国家安全的明目张胆的干涉。中国人民决不会允许这样的事情发生。

△ 《인민일보》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것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통합, 국가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며 중국 인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원문의 언어재료, 인용수법과 전달방법을 그대로 살렸다.

○ 高血压患者也最好少吃辛辣食物。辣味不会提高血压,但大部分辣料为增加味道,加入了大量的盐和糖,因此还是会提高血压。

△ 고혈압환자 역시 매운 요리를 자제하는 게 좋다. 매운맛 자체가 혈압을 높이지는 않지만 맛을 내기 위해 대부분 매운 요리에 소금과 설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압을 높인다.

원문의 개괄과 설명의 수법, 문법적인 인과관계를 살리었다.

○ 人在人情在, 人不在人情也不在。

△ 사람이 살아있으면 정분도 살아있고 사람이 죽으면 정분도 없어진다.

여기서 달리 표현할 수 있지만 원문의 긍정과 긍정, 부정과 부정 형태의 단어결합수법을 그대로 옮기었다.

○ 人有脸, 树有皮。

△₁ 나무는 껍질이 있고 사람은 낯짝이 있다.

△₂ 벼룩도 낯짝이 있다.

△₁ 번역문은 원문의 비유의 수법을 살려 직역으로 번역했고 △₂ 번역문은 우리말 속담으로 번역했다. 두 번역문을 비교하면 △₂ 번역문이 더 훌륭하다는 판단이 간다. 이 비교에서 직역의 방법이 모든 번역에 다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도리를 알게 된다.

4. 의역 방법

의역이란 원문의 표현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으로 원문이 전달하고 있는 의미를 생동하게 옮겨놓는 수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我是一个大字不识的大老粗》란 말을 매 글자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이 말에 사용된 언어재료들을 연결해 이해하는 뜻이 같지 않다. 만약 글자풀이를 하면 “나는 큰 글자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거친 사람이다”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에 담긴 여러 개 언어재료를 연결하면 “나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다”로 번역할 수 있다. 번역문에 나타나는 언어재료가 원문의 언어재료와는 전혀 같지 않지만 원문이 보여주는 뜻과 언어표현의 특징을